

Types of perception on the body shap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Su-Joung Ch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lothing which can improve the satisfaction of male university students' body shape by classifying the perception of body shape and examining characteristics by type. The types of recognition of body shape of male colleg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developed upper body with protruding under abdomen, normal body with long legs, developed under body with big skeleton, skinny body, and ladder type normal body. The actual body shape was classified into three. The Y type had a long chest length and a shoulder developed, and the lower body silhouette was plain and short. Type H was flat with little protrusion from the chest to the hip. Type X has a larger hip and longer hip length than the waist. Body type was classified based on bust, waist, and hip circumference, but recognition body type was classified based on visual characteristics. It is thought that ergonomic consideration is needed to cover the disadvantages of each body type considering the aesthetic part as well as wearing comfort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 fashion market nowadays that the slim fit is generalized. This study was limited to male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early 20s in Chungbuk province. Therefore, we could not grasp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mal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other provinces. Therefore,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 Keyword: Body shape, Mal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Type, Q-method

I. Introduction

현대에 들어서 TV, SNS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젊은 남녀 연예인들의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연예인들의 모습을 이상적인 체형이라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모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루키즘(lookism)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관점을 나타내는 말로 외모가 개인의 우열을 결정하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사회적 풍토를 일컫는다 [1]. 한국갤럽(2015)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86%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경우도 64%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의 88%, 20대 남성의 73%가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모에서 신경 쓰는 부분으로 옷이 30%, 헤어스타일 25%, 피부 21%, 화장과 얼굴이 13%였으며, 몸매도 10%로 나타났다[2].

이와 같이 외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외모에 집착하는 '아도니스 증후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아도니스 증후군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이다[3]. 외모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체형은 인체가 서 있는 자세에서 최외포 윤곽으로, 인체의 형태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골격의 크기나 피하지방의 축적의 양이나 분포 등에 의해 연령, 성에 따라 특징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또, 의복 맞춤새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같은 연령이나 성에서도 몇 가지 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4].

• First Author: Su-Joung Cha, Corresponding Author: Su-Joung Cha
*Su-Joung Cha (carollain@seowon.ac.kr), Dept. of Fashion and Clothing, Seowon University
• Received: 2018. 11. 30, Revised: 2019. 01. 16, Accepted: 2019. 01. 26.

성인 남성의 체형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골격이 크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며, 신체 비례에 있어서 목이 굵고 어깨너비가 넓고 엉덩이 너비가 좁으며 허리위치는 낮고 팔길이가 길다[5]. Size Korea는 제 6차 인체치수조사를 기준으로 20대 남성의 체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작은 역삼각체형으로 몸통이 가늘고 넓고 처진 어깨를 가지고 있으며, 긴 팔과 짧은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 또, 긴 몸통수직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큰 삼각체형으로 몸통이 굵고 추켜진 보통의 어깨폭을 가지고 있으며 긴 팔과 작은 머리, 짧은 엉덩이길이를 가지고 있다. 전체의 3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각체형으로 같은 굵기의 몸통과 보통의 어깨폭을 가지고 있으며 짧은 팔과 작은 머리, 긴 엉덩이길이를 가지고 있다. 20대 남성 중 가장 많은 35.9%가 사각체형에 속하였다[6]. 홍은희(2013)는 성인 남성의 체형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굴곡 있는 납작한 바른 체형, 굴곡 있는 젖힌체형, 굴곡이 없는 복부비만 체형, 비만한 흰체형, 두꺼운 숙인체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20대 남성은 굴곡 있는 납작한 바른 체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체형은 키가 크고 체간부가 짧으며, 체간부의 굴곡이 가장 크고 마른 납작하였다. 어깨너비가 크고 어깨기울기가 보통인 바른 체형이었다[7].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제 신체치수를 분석하여 체형을 분류한 것이며, 남자 대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어떻게 유형화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하여 남자 대학생의 의복에서 요구되는 체형을 이상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의복의 조건을 파악해봄으로써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복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Q Methods

Q방법론은 1935년 물리학자이면서 의사소통이론을 바탕으로 심리통계학자였던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창시된 방법론이다. 이후 Brown에 의해 대중화된 연구방법이다[8]. Q방법론이란 인간의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심리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이며, 연구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이다[8]. Q방법론은 자아발견적이며 연구자 자신의 관점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대상자들에게 감지되지 않는 심리 내적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으로 개인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고 인간의 행동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방법론이다[9].

Q방법론의 장점은 인간의 주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순수하게 주관적으로만 정의된다고 보는 의미의 세계를 객관화시키고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또, 객관성과 주관성

의 이분법적 구조를 배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이며,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10-11]. Q방법론은 개인의 내적 차이, 개인의 태도 변화, 지각 변화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며[12], 개인의 내적 구조 분석에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사용된다. Q방법론은 주관성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Q분류라는 조작적 단계를 통해 반응자의 개인적 견해를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Q방법론은 P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이 본인의 체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행위자의 관점에서 답변자의 의견을 분류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연구의 절차는 Q모집단의 구축, Q표본 도출, P표본 선정, Q소팅 및 자료처리, Q분석, 유형 해석의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14]. Q방법론은 무엇을 설명하기 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인간심리, 인간행동분야와 같이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개발단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구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15].

2. Study Plan

2.1 Q Population and Q Sample

Q모집단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concourse)이므로[8], 본 연구에서의 Q모집단은 남자 대학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모든 의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Q표본의 선정은 Q모집단의 선정과 같이 성공적인 Q방법론 연구를 위하여 중요하며 신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8]. Q표본은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주제와 관련된 모든 진술문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7],[16-17]와 조사된 자료를 통하여 수집된 Q모집단의 45개 진술문을 패션관련 대학 교수님과 전문가에게 먼저 제공하였다. 그 후, Q방법론에 적당한 수의 진술문으로 추출을 하였다. 상반신 체형, 하반신 체형 등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31개의 Q표본을 구성하였다(Table 1).

2.2 P Sample

P표본이란 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들을 뜻한다. Q방법론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보는 목적이 아닌 응답자 개개인 내의 중요성 차이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small-sample doctrine)[8]. Q방법론은 표본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1인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P표본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명의 P샘플을 선정하였다.

Table 1. Q Statement selected as a sample

Q Sample			
1	I have a thin waist	17	I have a slender arm.
2	I have an upper abdomen protruding	18	I have a big calf.
3	I have a developed shoulder.	19	I have a thick ankle.
4	I have a developed bust.	20	I have a protruding under abdomen.
5	My hip is big.		
6	I have thick thighs.	21	I have a dropped shoulder.
7	I have a long leg.	22	I am skinny.
8	I have a lot of muscles.	23	I am usually body type.
9	I have a long arm.	24	I have a protruding hip.
10	I have a long waist.	25	I have a big skeleton.
11	I am tall.	26	I have a slender neck.
12	I have a rectangle body type.	27	I have a dropped hip.
13	I am inverted triangular figure.	28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14	I am wider than the thickness of the body.	29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15	I am forward bent.	30	I have a ladder type body shape.
16	I am backward bent.	31	I have a high waist.

2.3 Q Sorting

Q소팅은 Q표본이 유사정상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가 되도록 강제분류방식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은 Q표본을 정상분포와 유사하게 분류하여 주요인분석이 가능하게 만든다. 우선 P샘플들이 Q표본 31개를 모두 읽은 후 긍정과 중립, 그리고 부정의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 진술문도 분류하였다(Figure 1).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진술문은 중립의 영역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Q소팅이 끝난 이후에는 양극단에 위치한 긍정의 진술문 4개, 부정의 진술문 4개에 대해 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심층 면담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조사한 내용은 기록하여 분석결과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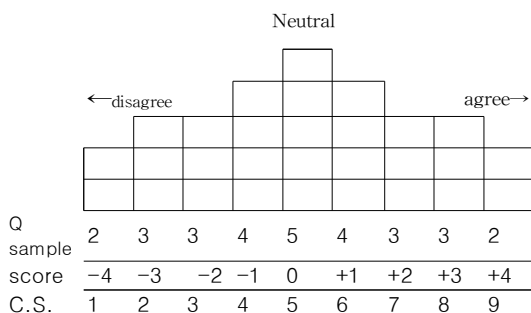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chart for Q sorting

3. Statistic and Analysis Method

Q분석을 위하여 퀴넬 프로그램(QUANL pc program)을 활용하였고, 변환점수(computational score)를 사용하여 코딩하였으며,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III. Result

1. Analysis Results

남자 대학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 유형은 다음의 <Table 2>와 같이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 1의 경우 부정적인 부분이 42.44%이고 반대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57.56%로 나타나 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 요인 3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부분이 36.92%이고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63.08%로 나타나 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가 '1'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5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94.11%를 설명하고 있었고, 제1유형과 제3유형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제2유형과 제4유형, 제2유형과 제3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형은 제1유형과 제4유형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Table 2. Q Factor loading and variance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Factor loading	5.9342	4.1555	1.7233
Variance	0.2967	0.2078	0.0862
Cumulative variance	0.2967	0.5045	0.5906

Table 3. Correlation of 5 types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1	1.000	-0.037	0.487	0.792	-0.076
Type 2	-0.037	1.000	0.144	0.402	-0.117
Type 3	0.487	0.144	1.000	-0.312	-0.376
Type 4	-0.792	0.402	-0.312	1.000	0.002
Type 5	-0.076	-0.117	-0.376	0.002	1.000

제1유형은 4명, 제2유형은 7명, 제3유형은 4명, 제4유형은 3명, 제5유형은 2명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의 경우 평균연령 24.25세로, 몸무게는 평균 79.25kg, 키는 172.25cm, BMI(Body Mass Index)는 26.71로 비만이였다. 그러나 제1유형 중 2명은 고도비만, 1명은 정상, 1명은 과체중으로 나타났다. 3명은 운동을 하며, 1명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은 평균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운동으로는 3명 모두 헬스를 하고 있으며, 식사는 평균 하루에 2회 정도하고 있으며, 주로 한식을 먹는 경우가 2명, 육류 위주로 먹는 경우가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을 하지 않는 1명의 경우 식사 습관이 몰아서 먹으며,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의 평균 연령은 21.42세로, 몸무게는 61.0kg, 키는 172.71cm였으며, BMI는 20.45로 정상이었다. 그러나 제2유형 중 정상이 6명, 과체중이 1명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하며, 주로 하는 운동으로 헬스와 맨손체조, 조깅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는 하루 2끼를 먹는 경우가 4명, 3끼를 먹는 경우가 3명으로 나타났으며, 한식을 주로 먹는 경우가 5명, 육류를 주로 먹는 경우가 1명, 분식을 주로 먹는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의 경우 평균연령 21.5세로 몸무게는 평균 73.75kg, 키는 174.25cm였으며, BMI

는 24.29로 과체중이었다. 3명은 정상이었으며, 1명은 고도비만으로 나타났다. 정상인 3명은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하는 운동은 헬스와 배드민턴으로 나타났다. 하루 2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고기, 한식, 인스턴트식품 등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도 비만인 1명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하루 2끼를 먹고 한식을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평균연령 21.63세로 나타났다. 제4유형의 몸무게는 58.3kg, 키는 176.0cm였으며, BMI는 18.82로 정상이었다. 1명은 저체중에 속하였고, 나머지 2명은 정상에 속하였다. 운동은 저체중인 1명만 매일하고 나머지는 한달에 1-2번 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하는 운동은 헬스와 축구, 족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하루 2끼를 먹으며, 주로 먹는 식사는 한식, 육류로 나타났다. 제5유형은 평균연령 22.0세로, 몸무게는 평균 66.0kg, 키는 175.0cm였으며, BMI는 21.55로 정상이었다. 운동은 한 달에 1-2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족구를 하고 하루 평균 2끼를 섭취하며 주로 한식과 분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 loading by type of P sample

Div.	No.	Factor loading	Age	Weight (kg)	Height (cm)	BMI
Type 1 (n=4)	2	3.8761	26	88	170	30.45
	3	0.8879	25	68	175	22.20
	5	0.8639	21	88	168	31.18
	19	3.7589	25	73	176	23.57
Type 2 (n=7)	10	1.9374	23	65	178	20.52
	12	1.2182	20	56	169	19.61
	14	1.9443	20	63	178	19.88
	15	0.6563	20	60	172	20.28
	17	3.3560	21	60	173	20.05
	18	1.9208	21	55	168	19.49
Type 3 (n=4)	1	0.5627	25	78	185	22.79
	6	1.0098	21	70	178	22.09
	13	1.1915	20	62	168	21.97
	16	0.6609	20	85	166	30.85
Type 4 (n=3)	4	0.9647	25	58	180	17.90
	8	2.1219	20	62	178	19.57
	11	1.4865	20	55	170	19.03
Type 5 (n=2)	7	0.6670	22	65	178	20.52
	9	1.1320	22	67	172	22.65

5요인의 유형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유형 1은 가슴이 발달되었다(No.4), 엉덩이가 크다(No.5), 몸통의 두께보다 너비가 넓다(No.14), 종아리가 굵다(No.18), 아랫배가 나왔다(No.20), 골격이 크다(No.25),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No.28)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유형 2는 다리가 길다(No.7), 키가 크다(No.11),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작은 역삼각형 체형이다(No.13)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유형 3은 어깨가 발달되어 있다(No.3), 허벅지가 굵다(No.6), 근육이 많다(No.8),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No.16), 엉덩이가 돌출되어 있다(No.24),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No.29)는 항목에서 표준점수가 높았다. 유형 4는 허리가 가늘다(No.1), 팔이 길다(No.9), 팔이 가늘다(No.17), 마른 체형이다(No.22), 목이 가늘다(No.26),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No.29)는 항목에서 표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5는 윗배가 나왔다(No.2), 허리가

길다(No.10), 허리와 엉덩이 차이가 작아 밋밋한 직사각형 체형이다(No.12), 앞으로 숙인 체형이다(No.15), 발목이 두껍다(No.19), 어깨가 처졌다(No.21), 보통 체형이다(No.23), 엉덩이가 처져 있다(No.27),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 체형이다(No.30), 허리가 높다(No.31)는 항목에서 표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Standard scores by type of 5factors(Z-score)

No	Statement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1	I have a thin waist	-1.9	1.8	-0.4	1.7	-0.7
2	I have an upper abdomen protruding	0.5	-1.4	-1.0	-1.0	1.2
3	I have a developed shoulder.	1.6	1.0	1.7	-1.0	1.0
4	I have a developed bust.	1.6	0.8	1.2	-1.0	-1.4
5	My hip is big.	0.4	-0.7	-0.2	-1.4	0.3
6	I have thick thighs.	0.4	-1.6	1.5	-0.2	-0.6
7	I have a long leg.	-0.6	1.4	0.9	0.7	0.1
8	I have a lot of muscles.	0.9	0.4	1.6	-1.2	-1.2
9	I have a long arm.	-0.1	0.6	0.5	1.6	-1.7
10	I have a long waist.	-0.1	-0.6	-0.3	0.0	0.3
11	I am tall.	-0.6	0.0	-0.1	-0.3	-0.7
12	I have a rectangle body type.	-0.5	-0.1	-1.4	0.3	0.8
13	I am inverted triangular figure.	0.5	0.7	0.4	-0.8	-1.2
14	I am wider than the thickness of the body.	0.8	0.6	-0.1	-0.2	0.4
15	I am forward bent.	0.8	0.1	-0.3	-0.4	0.9
16	I am backward bent.	-0.8	-0.3	0.7	0.0	-1.2
17	I have a slender arm.	-1.2	0.7	-1.7	1.6	-0.7
18	I have a big calf.	0.7	-1.3	-0.5	-1.1	0.5
19	I have a thick ankle.	-0.1	-1.3	-0.6	-0.6	0.0
20	I have a protruding under abdomen.	1.4	-1.2	-1.0	-1.7	-0.4
21	I have a dropped shoulder.	-1.3	-0.7	-1.0	0.1	1.2
22	I am skinny.	-1.4	1.6	-1.6	1.9	-0.3
23	I am usually body type.	0.1	1.1	-0.7	0.3	1.9
24	I have a protruding hip.	-0.8	-0.6	0.8	-0.0	-1.5
25	I have a big skeleton.	1.6	-0.5	1.3	-1.3	-1.5
26	I have a slender neck.	-0.5	1.0	-0.1	1.6	-0.2
27	I have a dropped hip.	-0.7	-1.0	-0.9	0.2	0.5
28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2.0	.4	1.0	-0.9	0.8
29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0.5	-1.1	1.0	1.0	0.4
30	I have a ladder type body shape.	-1.4	-1.2	-1.6	0.8	1.7
31	I have a high waist.	-0.8	0.6	0.9	0.8	1.4

2. Formation of Q type

2.1 Type 1: Developed upper body with protruding under abdomen

제1유형은 총 4명으로 구성되는데, 제1유형의 남자 대학생은 모두 상체가 발달된(No.28) 유형이다. 제1유형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No.28), 어깨가 발달되어 있으며(No.3), 골격이 크고(No.25), 가슴이 발달되었다고(No.4) 생각하고 있었다. 또, 아랫배가 나왔다고(No.20)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팔이 가늘고(No.17), 어깨가 처졌으며(No.21) 마른 체형이라는(No.22) 항목에는 매우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 체형(No.30)과 허리가 가늘지는(No.1)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Table 6. Characteristic of Type 1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28.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2.01
3. I have a developed shoulder.	1.62
25. I have a big skeleton.	1.56
4. I have a developed bust.	1.55
20. I have a protruding under abdomen.	1.41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17. I have a slender arm.	-1.22
21. I have a dropped shoulder.	-1.31
22. I am skinny.	-1.40
30. I have a ladder type body shape.	-1.43
1. I have a thin waist	-1.87

요인가중치가 큰 2번(3.88), 19번(3.76) 응답자는 제1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2번 응답자는 “상체와 어깨가 발달된 체형”이라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영을 오랫동안 해서 어깨와 상체가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골격이 크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유전적인 이유로 가족들이 대체로 골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아랫배가 나왔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술을 오랫동안 마시고 저녁에 야식을 먹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허리가 가늘다”, “하체가 발달된 체형이다”, “팔이 가늘다”, “어깨가 처져 있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으로 인하여 어깨와 가슴부위가 발달되면서 상체가 하체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하체는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않았으며, 팔도 운동을 하여 두껍고 근육이 발달되었다. 또, 어깨 근육이 발달되면서 어깨가 솟아 보인다고 하였다.

19번 응답자의 경우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골격이 크다”고 하였다. 또, “어깨가 발달되고 가슴이 발달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근력 운동을 좋아하여 거의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을 하여 상체 근육이 발달되었고 원래 골격이 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또, “운동으로 인해 가슴 부분과 어깨 부분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리가 가늘지 않고 엉덩이도 돌출되지 않았으며 팔이 가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허리는 두꺼운 편이고 엉덩이가 처져 있기 때문이며 팔뚝의 근육이 두껍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 체형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엉덩이가 크기는 하지만 어깨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1유형의 경우 어깨와 가슴이 발달되어 상체가 발달된 체형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리고 아랫배가 돌출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제1유형을 복부 돌출 상체 발달 체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2 Type 2: Normal body with long legs

제2유형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제2유형의 남자 대학생들은 제1유형과는 다소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허리가 가늘고(No.1), 마른 체형이며(No.22), 다리가 길고(No.7)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No.28)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또, 목이 가는(No.26) 보통 체형이다(No.4)는 항목에 동의하였다. 동의하지 못하는 항목으로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고(No.29)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 체형이며(No.30), 아랫배가 나왔다(No.20)이라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아리가 굵고(No.18), 발목이 두꺼우며(No.19), 윗배가 나왔고(No.2), 허벅지가 굵다(No.6)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Characteristic of Type 2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1. I have a thin waist	1.77
22. I am skinny.	1.59
7. I have a long leg.	1.43
28.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1.39
23. I am usually body type.	1.11
26. I have a slender neck.	1.03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29.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1.15
30. I have a ladder type body shape.	-1.15
20. I have a protruding under abdomen.	-1.18
18. I have a big calf.	-1.32
19. I have a thick ankle.	-1.35
2. I have an upper abdomen protruding	-1.45
6. I have thick thighs.	-1.64

요인가중치가 큰 17번(3.36), 14번(1.94), 10번(1.93), 18번(1.92) 응답자는 제2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7번 응답자는 “허리가 가늘다”, “어깨가 발달되어 있다”,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작은 역삼각형 체형이다”,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 이유로는 “바지를 살 때 허리가 가장 작은 쪽으로 구입 한다”, “어깨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해서 어깨가 발달되었다”, “어깨는 넓고 허리는 가늘어서 역삼각형으로 보인다”, “상체운동을 많이 하여 상체가 발달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벅지가 굵다”,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 체형이다”, “아랫배가 나왔다”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바지를 입으면 허벅지 부분이 많이 남는다”, “상체는 발달되어 있으나 하체는 빈약하다”, “어깨가 발달되어 있고 하체는 빈약하여 사다리형은 아니다”, “배는 절대 나오지 않았으며 배가 나왔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14번 응답자는 팔이 길고 가늘며 상체가 발달된 보통 체형이라고 인식하였다. 그 이유로는 몸무게와 키를 비교해봤을 때 보통 체형이며,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팔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늘고 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윗배가 나오거나 허벅지가 굵지 않다고 생각하

였으며 골격이 크거나 엉덩이가 처진 체형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그 이유로는 윗배가 숨 쉴 때도 나오지 않으며 허벅지도 하체운동을 하지 않아 가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손목이나 뼈가 가늘어 콤플렉스이므로 골격이 크지는 않고 엉덩이는 애플 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라 처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10번 응답자는 “다리가 길다”, “키가 크다”, “마른 체형이다”,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 이유로는 “다리가 너무 길어서 바지를 사면 다 짧다”, “평균 키보다 큰 편이고 실제로 나보다 작은 사람이 더 많다”, “주변에서 말랐다고 하고 실제로 몸무게도 조금 나간다”, “상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상체는 다른 부위에 비해 발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항목에는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 “종아리가 굵다”,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 체형이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걸어 다닐 때마다 앞으로 구부리고 다녀서 어깨를 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다리가 얇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뼈가 얇고 하체 운동보다는 상체 운동을 더 좋아한다”, “옷을 살 때 상의는 큰 사이즈를 사지만 하의는 작은 사이즈를 산다”라고 하였다. 18번 응답자는 “허리가 가늘다”, “다리가 길다”, “팔이 길다”, “마른 체형이다”라고 인식하였다. 그 이유로는 “말라서 허리도 가늘다”, “상체와 하체 비율 중 하체의 비율이 더 길다”, “키에 비해 팔과 다리가 긴 편이다”, “키에 비해 체중이 적게 나가고 매우 마른 체형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윗배가 나왔다”, “허벅지가 굵다”, “종아리가 굵다”, “골격이 크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말라서 배가 나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 비해 다리가 많이 얇은 편이다”, “다리가 전체적으로 얇아서 좋아리도 얇다”, “골격이 작아서 팔, 다리, 허리가 가늘다”라고 하였다.

제2유형은 허리가 가늘고 다리가 길며 목이 가늘며 상체가 발달된 마르고 보통인 체형으로 인식되었다. 제2유형은 긴 다리 보통 체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3 Type 3: Developed under body with big skeleton

제3유형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유형, 제2유형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제3유형의 남자 대학생들은 하체가 발달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하체가 발달되고(No.29), 허벅지가 굵으며(No.6), 근육이 많고(No.8) 골격이 발달된(No.25)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슴이 발달되고(No.4) 어깨가 발달된 것(No.8)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어깨가 처졌다(No.21), 아랫배가 나왔다(No.20), 허리와 엉덩이 차이가 작아 밋밋한 직사각형 체형이다(No.12),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 체형이다(No.30), 마른 체형이다(No.22), 팔이 가늘다(No.17)는 진술문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

Table 8. Characteristic of Type 3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3. I have a developed shoulder.	1.67
8. I have a lot of muscles.	1.58
6. I have thick thighs.	1.50
25. I have a big skeleton.	1.34
4. I have a developed bust.	1.16
29.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1.01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21. I have a dropped shoulder.	-1.00
20. I have a protruding under abdomen.	-1.04
12. I have a rectangle body type.	-1.38
30. I have a ladder type body shape.	-1.56
22. I am skinny.	-1.60
17. I have a slender arm.	-1.73

요인가중치가 큰 6번(1.01)과 13번(1.19) 응답자는 제3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6번 응답자는 “근육이 많다”,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작은 역삼각형 체형이다”, “어깨가 발달되어 있다”, “허벅지가 굵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운동을 즐겨하여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운동을 많이 하여 어깨가 발달되어 어깨가 넓고 엉덩이는 작은 편으로 역삼각형 체형을 가지고 있다”, “어깨 근육이 발달되어 어깨가 넓다”, “헬스를 즐겨하여 허벅지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숙인 체형이다”, “팔이 가늘다”, “허리가 길다”, “허리와 엉덩이의 차이가 작아 밋밋한 직사각형 체형이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운동을 하여 뒤로 약간 젖혀진 체형이다”, “운동으로 근육이 발달되어 팔이 가늘지 않다”, “허리는 길지 않고 보통이다”, “직사각형 체형은 아니고 상체가 발달되어 역삼각형 체형이다”라고 응답하였다. 13번 응답자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어깨가 발달되어 있다”, “가슴이 발달되어 있다”, “근육이 많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 이유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체가 많이 발달된 것 같다”, “웨이트트레이닝을 통해 어깨가 벌어져 있다”, “운동으로 가슴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운동으로 전체적으로 몸이 단단하고 근육이 많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나는 팔이 가늘다”,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 체형이다”, “마른 체형이다”, “윗배가 나왔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옷을 입었을 때 항상 팔이 딱 긴다”, “운동으로 어깨가 벌어져 역삼각형 체형이다”, “근육질 몸매로 마르지는 않았다”, “윗배는 복근 운동으로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제3유형은 BMI 지수가 과체중이고, 키는 세 번째로 중간 정도의 유형으로 허벅지가 굵어 하체가 발달되고 가슴과 어깨가 발달된 골격이 큰 체형이다. 제3유형을 큰 골격 하체 발달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2.4 Type 4: Skinny body

제4유형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유형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제4유형의 남자 대학생들을 허

리, 목, 팔이 가늘고 길며 마른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4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마른 체형이고(No.22), 허리가 가늘며(No.1), 목이 가는 것(No.26)으로 나타났다. 또, 팔이 가늘고(No.17), 긴 것(No.9)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가슴이 발달되었고(No.4) 종아리가 굵으며(No.18), 근육이 많다(No.8), 골격이 크다(No.25), 엉덩이가 크다(No.5), 아랫배가 나왔다(No.20)는 진술문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Table 9. Characteristic of Type 4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4	Standard score
22. I am skinny.	1.86
1. I have a thin waist	1.67
26. I have a slender neck.	1.64
17. I have a slender arm.	1.62
9. I have a long arm.	1.56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4	Standard score
4. I have a developed bust.	-1.04
18. I have a big calf.	-1.11
8. I have a lot of muscles.	-1.21
25. I have a big skeleton.	-1.27
5. My hip is big.	-1.41
20. I have a protruding under abdomen.	-1.67

요인가중치가 큰 8번(2.12), 11번(1.48) 응답자는 제4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8번 응답자는 “마른 체형이다”, “목이 가늘다”, “팔이 가늘다”, “팔이 길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마른 편에 속한다”, “목이 가늘어 길어 보인다”, “팔다리가 살이 없어 가늘고 길다”고 하였다. 그러나 “윗배가 나왔다”, “엉덩이가 크다”, “어깨가 발달되어 있다”, “종아리가 굵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밥을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는 편이다”,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바지가 남는다”, “어깨가 좁은 편이다”, “종아리가 여자처럼 가늘다”고 응답하였다. 11번 응답자는 “팔이 가늘다”, “마른 체형이다”, “허리가 가늘다”,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는 항목에 동의하였다. 그 이유로는 “상체가 마른 편인데 그 중에서도 팔이 매우 얇다”, “보기에도 말라보이고 체중도 키에 비해 적게 나온다”,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을 수 있는 바지가 거의 없다”, “상체보다 하체가 더 굵고 근육량도 하체에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골격이 크다”,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근육이 많다”, “아랫배가 나왔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말라서 왜소해 보인다”, “상체가 하체보다 더 말랐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 근육이 없다”, “배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특히 아랫배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BMI 지수가 5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유형으로, 4유형에 속하는 피험자에 저체중에 속하는 피험자가 있는 유형이다. 전체적으로 마르고 팔다리가 가는 체형으로 제4유형을 마른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2.5 Type 5: Ladder type normal body

제5유형은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유형과는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제5유형의 남자 대학생들은 제3유형과 반대로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으로 분석되었다. 제5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보통 체형이고(No.23),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 체형이며(No.30), 허리가 높은 것(No.31)으로 나타났다. 또, 어깨가 처져 있고(No.21) 윗배가 돌출되어 있는 것(No.2)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근육이 많고(No.8)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작은 역삼각형 체형이다(No.13),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No.16), 가슴이 발달되어 있다(No.4), 엉덩이가 돌출되어 있다(No.24), 골격이 크다(No.25), 팔이 길다(No.9)는 진술문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0).

Table 10. Characteristic of Type 5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5	Standard score
23. I am usually body type.	1.88
30. I have a ladder type body shape.	1.69
31. I have a high waist.	1.36
21. I have a dropped shoulder.	1.23
2. I have an upper abdomen protruding	1.17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5	Standard score
8. I have a lot of muscles.	-1.17
13. I am inverted triangular figure.	-1.23
16. I am backward bent.	-1.23
4. I have a developed bust.	-1.55
24. I have a protruding hip.	-2.07
25. I have a big skeleton.	-1.50
9. I have a long arm.	-1.75

요인가중치가 큰 9번(1.13) 응답자는 제5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9번 응답자는 “보통 체형이다”,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 체형이다”, “허리가 높다”, “윗배가 나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너무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다”, “하체가 발달되어 어깨가 좁아 보이고 엉덩이가 커 보인다”, “키에 비해 다리가 길어 허리가 높다”, “아랫배는 안 나왔는데 윗배만 나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엉덩이가 돌출되어 있다”, “골격이 크다”, “가슴이 발달되어 있다”, “근육이 많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엉덩이가 크지만 납작하다”, “골격은 크지 않다”, “가슴이 납작하고 살이 없다”, “근육이 많지 않고 살이 물렁물렁하다”고 응답하였다.

BMI 지수가 5유형 중에서 중간에 속하는 유형으로, 5유형에 속하는 피험자 모두가 정상에 속하였으며, 키는 두 번째로 큰 유형이다. 전체적으로 어깨는 좁고 엉덩이가 큰 유형으로 허리가 높고 윗배가 나와 있는 보통 체형으로, 사다리형 보통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남자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신체 유형별 특징을 요약하면 유형 1은 가슴과 엉덩이가 발달되고, 아랫배가 돌출되었으며 중

아리가 굵고 골격이 큰 상체 발달 체형이며, 유형 2는 키가 크고 다리가 길며,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작은 역삼각형 체형이다. 유형 3은 어깨가 발달되고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돌출된 하체 발달 체형이다. 유형 4는 허리, 팔과 목이 가늘며 하체가 발달된 마른 체형이다. 유형 5는 윗배가 나오고 허리와 엉덩이 차이가 작아 뚱뚱한 어깨와 엉덩이가 처진 체형이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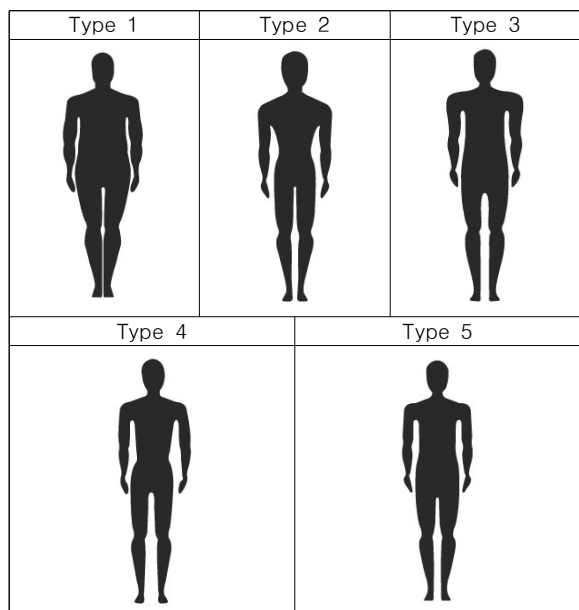


Fig. 1. Body Shape by Type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유형화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유형별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남자 대학생의 체형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복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양적 및 실험설계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은 남자 대학생 및 성인 남성의 실제 신체치수를 분석하여 체형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남자 대학생이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남자 대학생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주관성 연구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남자 대학생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나타내는 다양한 유형들이 갖고 있는 주관성의 형성과정과 주요 특징을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남자 대학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 유형은 복부돌출 상체 발달 체형, 긴 다리 보통체형, 큰 골격 하체 발달 체형, 마른 체형, 사다리형 보통 체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복부돌출 상체 발달 체형은 BMI지수가 가장 높아 비만에 속하였으며 어깨와 가슴이 발달되어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아랫배가 돌출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긴 다리 보통체형은 BMI지수가 두 번째로 작은

유형으로 허리와 목이 가늘고 다리가 길며 상체가 발달된 마른 듯한 보통체형으로 인식되었다. 큰 골격 하체 발달 체형은 BMI 지수가 두 번째로 큰 유형으로 키는 중간정도에 속하며 허벅지가 굵어 하체가 발달되고 가슴과 어깨가 발달된 골격이 큰 체형으로 과체중에 속하였다. 마른 체형은 BMI지수가 가장 작은 유형을 전체적으로 마르고 팔다리가 가는 체형으로 저체중에 속하는 피험자가 있었다. 사다리형 보통 체형은 BMI지수가 중간에 속하는 유형으로 어깨는 좁고 엉덩이가 큰 사다리형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허리가 높고 윗배가 나와 있다고 인식되었다.

실제 성인남성의 체형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Lee(2004)는 성인 남성의 상반신 체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넓은 어깨에 상반신 길이가 보통인 Large형, 보통 어깨에 상반신 길이가 짧은 Small형, 처진 어깨에 상반신 길이가 긴 Regular형으로 분류하였다. 하반신은 하반신 길이가 길고 뚱뚱한 H형, 하반신 길이가 짧고 하반신 상부가 비만한 Y형으로 분류되었다[18]. 전신체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슴길이가 길고 어깨가 발달되고 하체의 실루엣은 뚱뚱하고 짧은 Y형과 가슴에서 엉덩이까지 돌출이 적고 뚱뚱한 H형, 허리에 비해 가슴 엉덩이가 크고 엉덩이길이가 긴 X형으로 분류하였다[19]. 남자 대학생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복부돌출 상체 발달 체형, 긴 다리 보통체형, 큰 골격 하체 발달 체형, 마른 체형, 사다리형 보통 체형 등 5개로 분류되어 실제 체형 분류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실제체형은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체형이 분류되었으나 인식체형에서는 시각적인 특징들을 기준으로 체형이 분류되었다. 복부돌출 상체 발달 체형의 경우에는 상반신 의류제작 시 어깨길이나 복부부위에서 표준 체형과는 다르게 여유량을 설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긴 다리 보통체형의 경우에는 표준에 맞춰 의복패턴을 제작하되 바지길이의 설정 시 좀 더 여유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다리형 보통체형의 경우에는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 차이치수 설정 시 표준체형보다는 엉덩이부위의 여유량 설정을 크게 하여 허리와 엉덩이 차이치수를 크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슬림핏이 일반화된 요즘 패션시장의 트렌드에 맞추어 착용감뿐만 아니라 미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각 체형별 단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공학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체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의복패턴을 제작함으로써 체형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충북 지역의 20대 전반 남자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남자 대학생의 체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Q방법론이 소수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질적 연구이지만, 일반화의 가능성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체형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인식 체형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또, 심리적으로 인식하는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복디자인 개발을 통해 의복을 심리치료에 접목하는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Daum dictionary. "Lookism," Retrieved from September, 3, 2017,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325>
- [2] Korea GallupReport. "Recognition of appearance and cosmetic surgery," Retrieved from November, 6, 2018,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656>
- [3] K. A. Cho. "Men who are interested in appeara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pp. 8-11, 2008.
- [4] S. J. Park, "Cloth ergonomic study on slack pattern design by analysis of lower body shape in 20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98.
- [5] H. O. Choi, "A Study on Clothing Construction for men(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1.
- [6] Size Korea. Retrieved from 12, November, 2018. <https://sizekorea.kr/3d-body/korean-all-body-type/6>
- [7] E. H. Hong. "Development of Tight-fit torso patterns according to adult en's somatotype using surface flattening of 3D body scan data(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3.
- [8] H. K. Kim, "*Q methodology: Science Philosophy,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books, 2008.
- [9] H. S. Kim, Y. M. Won, "*Q methodology*," Seoul: Kyoyukwahaksa, 2000.
- [10] S. Brown, D. Durning, S. Selden, "*Q methodology*," 599-637, in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edited by Gerald J. M. NY: Marcel Dekker Inc., 1999.
- [11] B. McKeown and D. Thomas, "*Q Methodology*," CA: SAGE, 1988.
- [12] Y. D. Baek, "*Theory and Practice of Q Technique*," Incheon: Inha University Press, 1992.
- [13] J. Y. Lee, "A Study of the subjectivity on learning motivation in web-based instruction-in terms of Q methodology(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1.
- [14] K. Y. Kim, "Applying Q methodology to analyze mobile advertising effects on smart device user segmentatio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2011.
- [15] S. Y. Choung, "Analysis of Korean Restaurant Employees' Perception of Korean Royal Cuisine Using Q Methodology(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6.
- [16] B. A. Kim, "A Study of classification method for abdomen and upper lateral somatotype of Korea adult men(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 [17] Y. M. Noh,. "Development of Torso block for men in their body shape data(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 [18] H. Y. Lee, "A Study on Sizing System of men's suites based on the 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figure types and age group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04.
- [19] H. J. Seok. "A Study of body shapes of Korean males in their twenties: Centering around development of apparel sizing system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2000.

Authors



Su-Joung Cha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Clothing and Textiles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in 1996, 2005 and 2009, respectively. Dr. Cha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Fashion and Clothing at Seowon University,

Chungju, Korea, in 2017.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Fashion and Clothing, Seowo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human body, virtual 3D simulation, sewing technology and pattern making.